



서울시장 후보들 “바쁘다 바빠” 휴일인 2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왼쪽부터)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박 후보는 중구 ‘한양도성 순성길’을, 오 후보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안 후보는 금천구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각각 방문했다. /연합뉴스

여야 ‘LH특검’ 강대강 대치 예고

내일부터 실무협상 본격화...법안 등 조율 ‘3+3 협의체’ 가동 민주 “MB·朴 정부 사업도 추적”...국민의힘 “청와대 무제한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여야 실무 협상이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크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를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21일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

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합의의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은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특검 협상 전망이 안갯속인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실 특검은 수사의 대상이 명확하고, 좁고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사안에 적절한 제도라는 점에서 LH 사태 특검안에 절충점을 찾기가 더욱 난항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시작 오늘부터 여론조사...내일 후보 발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는 22~23일 실시된다. 두 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단일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를 하루만에 마치면 23일 발표도 가능하다.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25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두 후보는 선관위에 각각 기호 2번과 4번으로 후보등록을 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가 패자가 승복하면 29일부터 인쇄되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가 병기된다. 여론조사는 두 곳이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한다. 각 기관이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한다. 조사 방식은 100% 무선전화(휴대전화)다. 구체적인 조사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적합도·경쟁력 문구”라고 협상팀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 野 단일화 파장 주시 ‘박영선-오세훈’, ‘박영선-안철수’ 구도별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의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날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하자, 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싸늘한 여론을 마주한 상황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이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박영선-오세훈’ 또는 ‘박영선-안철수’의 구도별 유효리를 신중히 따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의 경우 제1야당의 조직력이 총동원될 수 있고, 안 후보의 경우 중도층 선호도가 비교적 높다는 게 각각의 부담 요소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아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선 정당이 뒷받침해주는 오 후보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전문가 이미지가 있고 중도 포섭력이 크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든 총공세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내곡동 땅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두고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 후보를 향해선 지난 10년간의 정치 행보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안 후보가 정치권에 뛰어들 뒤 세 번 창당하고, 자신이 만든 당에서 두 번 탈당하고 한 번 합당한 경력이 있다며 ‘갈지자 행보’로 규정했다. 여기에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절수왕”이라고 회화화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영덕아 학교가자’ 정책간담회 재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중단된 ‘영덕아 학교가자’ 정책간담회를 재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남구 동아여고와 동아여중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영덕아 학교가자’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봄이 찾아오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지난해 국민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학교 현장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



건교사와 특수교사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등교 시킬 수 있게 됐다”며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긴박이 없는 수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공공주택지구 조성 중 투기 추적·응징·환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원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전남도당’ 무안 남악으로 당사 이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동하)은 21일 “전남도당 당사를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 남악으로 최근 이전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사 이전은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진호남 행보’의 하나로, 지난 34년간 광주에 소재한 기존 당사를 매각하고 전남도청 소재지로 당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도당사는 무

안군 삼향읍 남악3로 80 제일프라자에 자리 잡았다. 당사는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당원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남도당은 설명했다. 당사 개소식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초청해 전남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남도당은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 ▶ 중개환영.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